품질과 안전에 있어 '기본'에 충실하는 『동양매직』

조태엽 | 협회 경영기획부 차장

인재육성, 가치창출, 사회봉사의 경영이념 이래 국내 처음으로 가스오븐레인지를 생산하였고, 이어서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가스보일러, 김치냉장고를 개발, 생산하면서 특화된 분야 - 주방가전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독특하고 차별화 된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동양매직을 인천지부의 추천으로 방문하여 방화관리자 노균영 대리에게 소방시설 및 방화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1985년 7월 동양시멘트 기계사업부로 출발한 동양매직은 고객중심의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신기능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으며, 가스오븐레인지나 식기세척기 등의 제품을 통해 고품격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 일반사항

방화관리자 노균영대리 / 동양매직 홍보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소재한 동양매직은 대지 63,333㎡, 연면적 72,726㎡에 4개의 공장동과 물류창고 등 8개의 부속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0여 명의 사원들이 하루 3교대로 일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주요건물과 일부 부속건물은 10m이상 이격되어 있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며 부지내 소화활동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 효과적인 화재예방활동

전 직원이 자위소방대에 편성되어 각 건물, 동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소방훈련은 종합훈련 2회, 부분훈련 2회, 기초훈련 2회, 도상훈련 2회를 실시하고 있다. 당직자는 시간대별로 방화순찰을 2명이 2시간마다 1회씩 순찰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순찰자를 보강하여 운영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전 직원에게는 팀별로 분기 1회 이상 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등에 관한 소방교육을 자체교육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방화안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조심 플래카드와 표어 · 포스터 부착, 변전실과 위험물 저장소에는 경고문과 주의표시를 부착하여 직원들이 사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증 ·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방화관리 업

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 안전을 바탕으로 품질최우선 정책 전개

동양매직은 우량회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기본'이란 부분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다져오고 있다. 여기에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품질최우선 정책을 펴고 있고 업무 전 미팅시 안전구호를 제창한 후 업무를 실시하며, 안전 · 소방교육과 훈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관할소방서 및 점검기관으로부터 지적된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또는 단계적으로 정비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등 경영진도 안전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다.

■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한마디

모든 방화관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동양매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화관리자 노균영씨도 안전관리를 해오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으나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고 한다.

먼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만, 방화관리자로서 어떤 '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따르는 실질적인 권한도 어느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특히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두려면 직원들의 많은 협조와 회사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무재해 사업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안전관리 및 소방종사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애로사항은 기존 소방시설을 시설기준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에 노균영 방화관리자는 "법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건물의 특성과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세부 위험별 시설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방재전문기관이 참여하여 화재안전에 충족된 시설이 되도록 철저한 감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에서 소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방재시설 생산업계도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고성능, 고효율의 소방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없어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많은 걱정을 하였다.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플래카드 부착

■ 협회에서 하고 있는 위험관리에 대해서

동양매직의 방화관리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과 자체점검 등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방재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회사의 실정과 시설형편에 적합하게 조언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문제점은 많은데 해결방안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해결방안도 회사의 현실을 무시한 방법이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에서 받는 자체점검 등은 회사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할 수 있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방재기술자료와 최신의 정보제공 부족, 화재사진 · 불조심 포스터 대여기간 종료, 무료 화재예방교육 기회 부족 등을 지적하고, 지방소재 공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